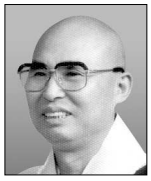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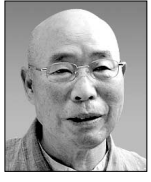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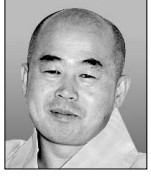
부산종교인평화예술제
부산 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에서 APCEC 성공개회를 위한 제3회 부산종교인평화예술제를 개최한다.(051441-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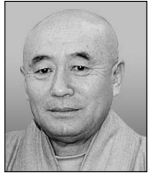
갯바위 유리광전 삼천불 봉안식
영천 선봉사 주지 정목 스님은 11월 4일 수덕사 수좌 설경 스님을 증명법사로 갯바위 유리광전 삼천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 봉행
부천 대덕사 주지 성인 스님은 11월 17일 오전 10시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법당에서 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를 봉행한다.(0321664-5545)



해국 스님 초청법회 거행
대구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은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1월 7일 중주 석종사 선원장 해국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발전기금 1억원 기부
서울 정릉 모사찰에서 수행중인 명운 스님이 11월 8일 동국대 대외협력처에 평생 모은 돈 1억원을 동국대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청소년 환경등산대회 개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11월 27일 포천 보현사에서 '제3회 청소년 초청 환경 등산대회'를 개최한다.(02735-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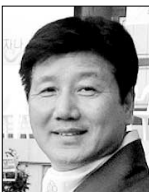
현불사 성지순례
부산여성불자회 왕산사 회장은 11월 9일 대한불교 일승종 부산인 현불사를 비롯 봉화 일대 사찰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조계사 청년회 새 회장에 박희정씨



21대 조계사청년회 박희정 회장(37·사진)은 11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박희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효율적인 법회 운영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조계사청년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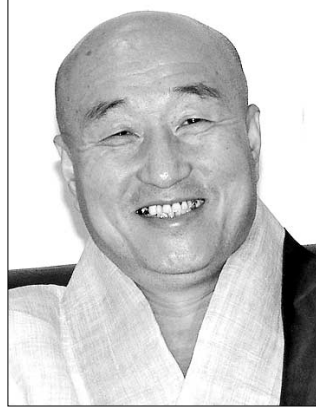
대구경북포교사단장에 최문성 포교사



대구경북포교사단장에 최문성(57·사진) 현 단장권한대행이 선출됐다. 2000년 제5기 포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최문성 포교사는 사찰문화안내팀장, 특별위원, 감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9월부터는 단장권한대행을 맡아 활동을 펼쳤다. 배지선 기자

“법장 스님 뜻이어 나눔 확산”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이사장 일면 스님



“원칙한 법장 스님의 뜻을 이어 생명나눔운동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균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사진)이 11월 7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회에서 법장 스님 원적 이후 공석이던 이사장직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스님은 “법장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생명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3년 임기 이사장직 맡은 각오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스스로를 ‘생명나눔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2000년 1월 간이식 수술을 받을 때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

이다. 스님은 당시 22살 뇌사 청년의 ‘생명나눔’을 통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간’을 기증받음으로써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스님은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생명나눔과의 인연인 셈이다.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제대로 ‘생명나눔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내게 간을 준 사람에게 대한 예의겠지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가 된 지 이제 3년째.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명나눔운동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부분과 개편해야 할 부분들을 정

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님은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최대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생명나눔이야말로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생명나눔운동에 쏟아내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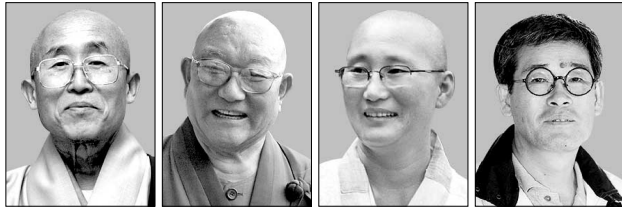
제3회 대원상 월운·무진장 스님, 김재일씨, 관자재회

특별상엔 박근호·고경순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11월 11일 제3회 대원상 수상자로 월운 스님과 무진장 스님(승가부문·공동),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재가부문), 정토사 관자재회(단체부문)를 선정했다.

승가부문 공동수상자인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은 역경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공로가 인정됐고, 무진장 스님은 오랜 기간 전법포교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됐다.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는 보리방송모니터링과 (사)보리를 설립해 각종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했으며 단체부문의 정토사



월운 스님 무진장 스님 능행 스님 김재일씨

관자재회(대표 능행)는 1998년 불교계 유일의 호스피스 봉사단체로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상을 수상한 박근호(57)씨는 교도관으로서 36년간 재소자 교화에 노력하고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장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고경순(68)씨는 대구 자비전화 회장, 상록

말씀 등 각종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35년 동안 펼쳐왔다.

대원상 승가, 재가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천만원, 단체부문은 상패와 상금 1500만원,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에서 열린다. 박봉영 기자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절감했어요”

청정선거운동본부 활동 마친 수완 스님



영제 도인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철주 기자 yu@buddhapia.com

“부구제 수치 5년 이상 된 스님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상임대표 수완 스님(현대불교신문인쇄회장·사진)은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완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교계 인파에 청정선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도 “후보들의 불참으로 중책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는 11월 8일 해산했으며, 선거공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1월 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는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을 출판한 ‘여시아문’과 저자인 장지현씨가 출판부분상을 수상하는 등 각분야에 대한 시상 진행됐다. 불교언론 대상은 공종원씨가 수상했다.

파라미타 사찰생태문화제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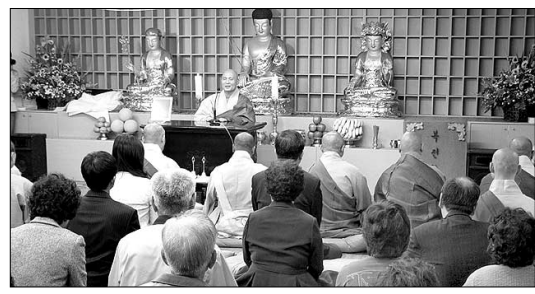
파라미타 대전지부(지부장 장광)는 11월 6일 김천 직지사서 제6회 파라미타 사찰생태문화제 답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대전지부 소속 탄방초등학교와 보문중·고등학교, 문정중, 대문중, 준원고 회원 500여 명은 문화제 강연을 듣고 문화제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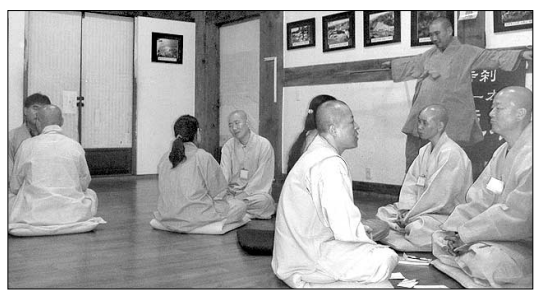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11월 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제4회 은정장학 학술연구지원, 생활력리듬 증진수여식’을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6개 단체와 초·중·고·대학생 60명에게 총 1억 7950만원이 전달됐다.

부산불교교육원 재개원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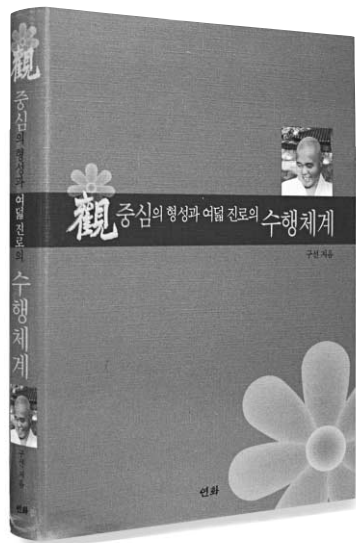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 개원법회가 11월 10일 교육원법당에서 봉행됐다. 법어 주지 대성 스님,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을 비롯해 100여 사부대중들이 동참했다. 박동범 원장은 “아침을 더 내고 불교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1년 동안 부산불교교육원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동국대 상담대학원 스님들 템플스테이



동국대 불교상담대학원 스님들과 학생 등 10명은 11월 4-6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지도법사인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스님은 “자비 명상 수행을 하면서 내면을 살펴보고 내안의 자비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쳐버리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히 깨달아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가 줄 알아야 한다.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다 해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실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복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히 깨달아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의시 하지 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